

선박 컨테이너에 갇혀 40일 버틴 '기적의 개'

선박 컨테이너 안에서 40일 간 갇힌 개가 기적처럼 살아 남은 사연이 공개됐다.

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생후 1년 된 개 '밀리'는 올해 초 파나마에 있는 아틀란티코 항구에 도착한 선박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됐다. 이 컨테이너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항구에서 대서양을 건너왔다. 컨테이너는 20일 만에 도착했지만 20일 계류돼 밀리는 그 안에서 무더운 날씨를 견뎌야 했다.



▲ 선박 컨테이너에 갇혀 40일 버틴 기적의 개 밀리. 사진=melixio,detailzero.com

덕분에 밀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발견 후 수도 파나마 시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발견 당시 4kg에 불과했던 밀리의 몸무게는 이제 12kg에 달한다.

밀리라는 이름은 기적을 뜻하는 밀라그로스(Milagros)를 줄여 붙여졌다. 동물 전문가들은 밀리가 컨테이너에 들어갔을 당시 건강 상태가 좋고 체지방이 충분했기에 살 수 있었다고 추정한다.

밀리는 컨테이너 일부가 부식돼 생긴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빗물을 마시며 버텼다. 날씨가 밀리의 생존을 도왔다. 컨테이너가 선박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거나 항구에 머무는 동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이

밀리는 재활 치료 5개월 만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파나마 농축산개발부(MIDA)는 그런 밀리가 제2의 건생을 살 수 있도록 탐지견 훈련을 받게 했다. 영리한 밀리는 훈련을 무사히 완수했고 파나마 시티 국제공항 검역팀에 배속됐다.

동안이 원망스러운 27세 남성

중국에서 한 남성이 어려보이는 얼굴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중국 광둥성 둥관에 사는 27세 남성 무성은 최근 SNS 영상에서 자신의 외모가 어린이처럼 보여 일할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 무성은 어려보이는 얼굴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왼쪽 사진, SNS상에 영상을 공개했던 인플루언서는 무성의 아버지를 찾아가 돕기로 약속했다(오른쪽 사진, 사진= 더우인둥관판개)

해당 영상은 지난달 22일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촬영해 공개한 것이다. 당시 둥관판가라는 인플루언서가 사무실 앞에서 웬 아이가 커다란 여행가방을 끌고 땀을 흘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몇 살이나고 말을 걸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삭발을 한 무성은 자신이 1995년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 외모는 어린이처럼 보여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내 나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믿는다 해도 아이를 고용했다고 신고 당하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일을 해야만 하지만, 써주는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이 공개된 며칠 뒤 그는 한 업체의 도움으로 청소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그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몸의 붓기와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인플루언서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까지 받게 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깨끗해!" 강물 들이킨 정치인 입원



강물정화사업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강물을 마신 정치인이 병원 신세를 졌다.

최근 인도 펀자브주 술탄푸르 로디에서 칼리 바인강 정화사업 2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펀자브주 총리는 강물 한 잔을 떠 마셨다. 강물 정화사업의 성공을 홍보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하지만 그는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길이 165km의 칼리 바인강은 호시아푸르에서부터 카푸르탈라까지 4개 구역을 가로지르는 펀자브주의 주요 물 공급원이다. 시크교 창시자 구루 나나크(1469~1539)가 강에서 목욕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성스러운 강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곳곳에서 흘러든 오·폐수가 강물을 오염시키면서 '검은 개울'이라는 뜻의 칼리 바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펀자브주는 2000년부터 칼리 바인 강 정화 사업을 벌였다. 일대 농경지 관개시설의 주요 물 공급원이었지만 심각한 오염으로 농경지가 말라붙고 설상가상 전염병까지 돌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정화사업으로 강물은 전보다 맑아졌지만, 인근 습지에서 오염된 물이 역류하고, 오·폐수 불법 방류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와 같은 몸살을 여전히 앓고 있다.

총리 측은 검진 차 병원을 찾은 것뿐이라며 강물정화사업의 실패를 부인했다. 펀자브주 관계자는 "총리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간 것이며 하루 만에 퇴원했다"고 해명했다.

사진=twitter(PunjabGovtIndia)

척추 디스크 통증에서 완전해방!!

풍부한 경험의 척추전문 의사와 최첨단 의료기가 만났습니다

30년간 척추디스크 및 좌골신경통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윤동준 척추신경병원에서는, 21세기가 낳은 혁신적인 최첨단 무중력 입력감소 치료기 DRX9000을 갖추고 90% 이상의 현저히 높은 완치율로 고통없는 치료방법으로 다양한 척추디스크 질환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아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 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척추디스크 치료 30년 이상의 임상경험 최첨단 척추디스크 치료기가 함께 해 최고의 결과를 자부합니다!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만성요통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의대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0년



윤동준 척추신경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CA 92840